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

박동진\*·이지연\*\*

## 초 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 조사(2014)의 데이터 중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454명의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래에 대한 생각은 진로장애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를 감소시키고, 이들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방안을 논의하였고, 제언하였다.

**주요어**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미래에 대한 생각, 매개효과,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 I. 서론

오늘날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이 학업중

\* 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wookana@hanmail.net

\*\*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 verangel@nate.com

단 등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으로 인해 생애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교에서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개인적·사회적으로 낙오의 원인이 되며(전경숙, 2006), 정서적 측면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뿐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적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혀지면서 심리적 부담이 더 심화되기도 한다(김진숙, 신혜숙, 문현주, 2014; 노기호, 2014; Mickelson & Williams, 2008).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받는 사회적 낙인은 청소년기에 한정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진입하고서도 저학력으로 인한 취업의 제한과 차별로 인해 결국 전 생애의 측면에서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김범구, 2013; 이화명, 김영미, 2017).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단순히 한 개인이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 또는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것 등 실제적인 피해로도 나타나고 있다(최지연, 김현철, 2016).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도하려고 해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낙인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진로장애를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진로장애는 진로에 대해 취업 및 진학, 직업생활을 하거나 직업을 전환하는 등 일련의 경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인식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적절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한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손은령, 2001). 즉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달리 학업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비롯해 학교라는 공식적인 소속과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없어졌다는 점, 학생 중심의 적절한 지원체제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이들이 진로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는 더 극심하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도 학교 밖 청소년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막막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노지혜, 문성호, 2019), 필요한 정보를 찾고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지 못한데다가 정서적 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감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지혜, 2008).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청소년에 비해 진로와 관련하여 불명확성, 정보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지혜, 2008; 주금옥, 2002; 황선미, 신현숙, 2007)

그러나 그동안 일반적인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노지혜, 문성호, 2019).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주로 학업중단 요인,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에 대해서는 주로 접근되어진 반면에(김범구, 2012; 조혜영, 2019), 이들의 실제적인 진로준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 및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에 있어서 이들의 진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업을 갖고, 진로를 추진해나가는 기초능력을 저하시켜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하고 있으며(오정아, 오해섭, 2018), 이들의 진로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초점을 두고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낙인에 따라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낙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박봉선, 2019). 진로에 있어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사회적 낙인은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에 대해 가지는 생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낙인은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이는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선희(2014)는 노동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지지가 미래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바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 자기효능감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반면에, 반대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김민선(2019)에 의하면 사회적 낙인감이 높아질수록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볼 때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더 많이 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래에 대한 생각은 진로준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Trommsdorff, Lamm & Schmidt, 1979)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미래에 대한 진로준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사회적 낙인감과 미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도에 중단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에서 인증된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에게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보여줄 기회가 결여되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 힘든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적 측면으로는 학교 중퇴로 인해 발달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술의 습득 기회가 상실되며 ‘중퇴자’라는 낙인으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범구, 2013). 낙인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고 감정적 반응을 더한 편견을 갖거나, 이에 따른 차별행동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의미한다(Penn & Martin, 1998). 낙인은 개인에 대해 자신과는 다르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부정적인 인식과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 정체성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그 개인을 자기 수용과 사회적인 수용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이인옥, 이은옥, 2006).

낙인은 내재화되는 과정에 따라 주위 사람들의 낙인과 자기낙인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공식체계와 비공식 인물들 즉 부모와 교사, 친구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일차적 낙인을 주위 사람들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순래, 박형기, 2007).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들 주위에 있는 공식적인 체계와 비공식적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모, 친구, 학교교사 등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학업중단을 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박봉선, 2019). 다시 말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회적 낙인(public stigma)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Vogel, Wade & Haake, 2006).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대중들에게 어떠한 개인이 전형적이지 않고 일탈적으로 지각됨으로써, 그 개인과 다른 타인들로부터 의심을 야기하게 하는 속성만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김지은, 2006; 박봉선, 2019; Goffman, 1963).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되면 그 낙인을 받은 개인은 자신에 대해 내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다고 인식하거나 열등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김민정, 김순석, 2014), 심각한 수준의 좌절감 및 분노를 경험하고, 자신을 사회적 낙오자로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열등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홍봉선, 남승규, 남미애, 2002). 특히, 학업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등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Link et al., 1997; Mickelson & Williams, 2008),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자아개념을 형성시키며,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이인옥, 이은옥, 2006).

이처럼,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재학중인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발달과정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 낙인을 경험하고 좌절을 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므로(홍봉선, 남승규, 남미애, 2002),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과 지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박봉선(2019)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사람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실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 2.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로 일찍 진입하기 때문에 빠르게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진로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신현숙, 구본용, 2002).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욕구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곤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면서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진로를 선택하는 기회와 적절한 발달을 경험하는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김지혜, 2005). 또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주위로부터 편견을 마주하거나 무시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김영희, 최보영, 2015; 최지연, 김현철, 2016) 진로장애를 인지할 수 있다.

진로장애는 진로장벽이란 표현과도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 우선, 진로장애는 진로를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내적·외적의 모든 요인들을 설명하는 변인이다(Fitzgerald et al., 1995; Lent et al., 2000; 이상희, 2007, 재인용). 진로장벽은 Crites(1969)가 진로발달을 저해하고,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이라고 하면서 진로장벽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진로장벽은 진로에 관련되는 취업이나 진학, 직업생활 등을 경험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바람직한 진로탐색을 하고, 진로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손은령, 2001; 강원덕, 안귀여루, 2010). 고복순과 김영혜(2011)는 진로장벽에 대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상황에 따라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주관적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진로장애와 진로장벽은 진로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요인과 조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진로방해 요인들이 있다. 학업수행과 학업능력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된 학력은 진로장벽이 될 수 있고, 학업을 그만두는 데 영향을 미쳤던 부정적인 요인들이 이들의 진로장벽이 될 수 있다(박지현, 황미영, 2017).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비행,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진로장벽이 될 수 있다(황선미, 신현숙, 2007).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적응하여 일탈했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적응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으며(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업을 갖고, 진로를 추진해나가는 기초능력을 저하시켜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한다(오정아, 오해섭, 2018).

이상희(2007)는 진로장애가 한 개인의 진로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것이 다른 여러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각 집단의 특성에 의해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진로장애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인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연구들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노지혜, 문성호, 2019),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 또는 진로장벽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지현과 황미영(2017)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는 것, 취업을 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해 조망하고, 계획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준비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3.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생각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학교라는 체계에서 제공되는 학업을 받을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이고 적절하게 진로를 개발하고, 학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기술을 발달시키는 등 여러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박지현, 2017). 이와같이 학교 밖 청소년이 놓이게 되는 상황은 이들이 자아정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찍 사회로 진입하게 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 중 일부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다(조아미, 이진숙, 2014).

미래에 대한 생각 중 하나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인식으로의 변인인 희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기엽(2011)은 희망이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고, 진로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변인으로 밝힌 바 있고, 특히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박지현(2017)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 희망,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희망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희망은 진로장벽과의 관계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미래기대와도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유지선(2007)은 미래기대에 대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미래기대에는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조명하기 위한 능력, 자신의 목표, 계획, 결정을 통해 미래를 통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진경(2011)은 미래기대에 대해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밝히면서,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하는 현재의 동기 및 행동의 표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영재(2008)는 기대에 대해 주관적 가능성이라고 간주하였으며, 기대수준을 개인이 어떠한 일에 대해 예상하는 장래의 성취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진경과 김혜연(2013)은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기에 청소년의 미래기대는 매우 중요하고, 미래기대는 학업성적에 대해 관심과 열망을 높게 하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해준다고 하였다. Poole과 Cooney(1987)의 연구에서는 미래기대를 개인적 미래지향 영역과 사회적 미래지향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학업, 직업과 진로, 결혼과 가족 영역에서 청소년의 미래기대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는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진경, 2011).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행로에 대한 심층경로를 분석했던 성윤숙과 이지혜(2016)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을 선택한 후 걸어갔던 행로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그들이 경험했던 환경적, 관계적, 학업적 등 다양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해함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대책을 수립하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환경적, 관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낙인감이 학업적 고민을 내포하고 있는 진로와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해보는 것으로써,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미래에 대한 생각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여느 청소년과는 다르다는 사회적인 시선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낙인감으로 경험되며, 학력에 대해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감을 더 강하게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김민선, 2019).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하며 학업을 하는 것이 평균적인 정상궤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에서 이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곧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로써 사회적 낙인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은 이들의 향후 진로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본용, 신현숙, 유제민(2002)은 학교 중퇴경험이 비행이나 우울 등의 개인차원에서의 문제 및 가정의 경제적 문제, 진로에 대한 우려 등이 재학생과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사회적 낙인은 학업중단 이후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어(윤철경 외, 2014), 진로장애에 있어서 사회적 낙인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선(2019)은 학업중단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장벽과 진로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낙인감이 삶의 만족과 우울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는 유의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로장애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 사회적 낙인감과 함께 주목할 것은 바로 진로에 대해 갖는 생각이다.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말한다. 안윤정, 오현주, 김미경(2011)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Haldeman과 Baker(1992)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연속적인 사고, 긍정적인 태도, 진로에 대한 확실한 결정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볼 때 긍정적으로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장애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미래에 대해 생각이 다소 부정적이라면 진로장애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사회적 낙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Matsueda(1992)에 의하면 낙인을 부여받은 청소년은 자

신에 대해 비행 청소년이라고 여기게 되며, 이에 따라 미래에 더 큰 일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Mcgee(2001)도 사회적 낙인이 청소년들이 갖는 미래지각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도 김민선(2019)에 의해 사회적 낙인감이 높아질수록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를 고려해보면, 사회적 낙인감이 미래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사회적 낙인감을 낮게 경험할수록 미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진로장애가 낮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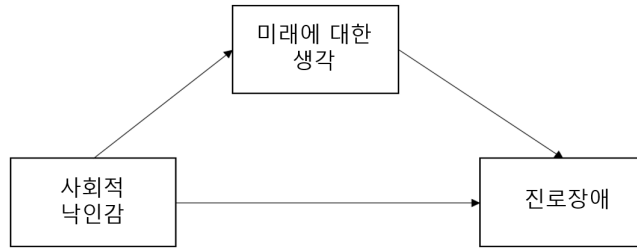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에 사회적 낙인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이들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4)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 2차년도 조사에는 총 599명의 연구대상자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규 중·고등학교 재학 93명, 정규 고등학교 졸업 3명, 대학교 재학 또는 고졸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 49명 총 145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454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과 이 영향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또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에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2014) 데이터의 원 데이터에서 종속변수인 진로장애와 독립변수인 사회적 낙인감, 매개변수인 미래에 대한 생각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별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낙인감은 학업중단청소년패널의 2차년도 자료 중 배주미 외(2010)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

낀다”,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다만,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19로 나타났다.

## 2)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학업중단청소년패널의 2차년도 자료 중 전영실과 신동준(2012)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36로 나타났다.

## 3) 진로장애

진로장애는 학업중단청소년패널의 2차년도 자료 중 배주미 외(2010)의 진로장애척도를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줄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다만,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애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3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 자료에 대해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측정변수들의 특성을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했던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고,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오차를 산출하였고, 왜도, 첨도의 점수를 확인하여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Kline(2015)에 의한 정규성 검증 기준인 왜도의 절대값(-.396~-|.028)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176~|.578)이 10을 넘지 않아 각각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변수 간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수 간의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진로장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사회적 낙인감, 미래에 대한 생각 모두로 나타났다. 진로장애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낙인감과 관계에서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을 보여( $r=.408$ ,  $p<.001$ ), 사회적 낙인감이 높으면 진로장애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미래에 대한 생각은 진로장애와 비교적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396$ ,  $p<.001$ ).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생각이 높을수록 진로장애가 낮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낮을수록 진로장애가 높

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낙인감과 매개변수인 미래에 대한 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사회적 낙인감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비교적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r=-.386$ ,  $p<.001$ ), 이것은 사회적 낙인감이 높으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사회적 낙인감	2. 미래에 대한 생각	3. 진로장애
1. 사회적 낙인감	1		
2. 미래에 대한 생각	-.386***	1	
3. 진로장애	.408***	-.396***	1
최소값	8.00	3.00	13.00
최대값	30.00	12.00	47.00
평균	16.5242	8.9786	28.9736
표준편차	3.60195	1.90913	6.45475
왜도	-.028	-.396	-.203
첨도	.444	.578	-.176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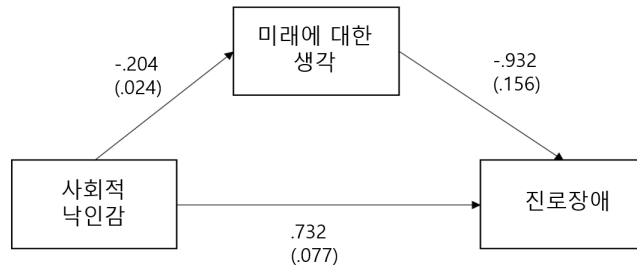
## 2.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매개효과는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가 결과가 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인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Baron & Kenny, 1986).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하는 자료를 볼 수 있고, 어떠한 효과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Tram & Cole, 2000).

〈표 2〉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R <sup>2</sup>	F
		B	S.E	$\beta$			
1단계	사회적 낙인감 → 진로장애	.732	.077	.408	9.515 ***	.167	90.530 ***
2단계	사회적 낙인감 → 미래에 대한 생각	-.204	.024	-.386	-8.568	.149	73.407 ***
3단계	사회적 낙인감 미래에 대한 생각 → 진로장애	.550	.082	.309	6.669	.238	65.172 ***
		-.932	.156	-.277	-5.973		

\*\*\* p<.001



\*\*\* p<.001

〔그림 2〕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08$ ,  $p<.001$ ). 2단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미래에 대한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86$ ,  $p<.001$ ). 3단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정(+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309$ ,  $p<.001$ ), 미래에 대한 생각은 진로장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77$ ,  $p<.001$ ). 또한 3단계에서 살펴본 사회적 낙인감의 영향( $\beta=.309$ ,  $p<.001$ )은 1단계에서 나타난 사회적 낙인감의 영향( $\beta=.408$ ,  $p<.001$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

한 생각은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낙인감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거쳐 진로장애로 가는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Z=4.8877$ ,  $p<.001$ ), 이는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어 진로장애가 더 감소되도록 돕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낙인감이 높으면 진로장애가 높고, 사회적 낙인감이 낮으면 진로장애가 낮은 것이다. 이 결과는 김민선(2019)이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사회적 낙인감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 시기에 준비해야 할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낙인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도 지속되는 것이니만큼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학교 밖 청소년



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므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미래에 대한 생각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낙인감이 높으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고, 사회적 낙인감이 낮으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것이다. 이 결과는 Matsueda(1992), Mcgee(2001), 김민선(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을 감소시켜주는 것은 이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한다. 이에 이어서 미래에 대한 생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사회적 낙인은 이렇게 악순환의 과정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인 것이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심리정서적인 적응 수준을 높이므로(김민선,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감을 낮추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미래에 대한 생각은 진로장애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면 진로장애가 낮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면 진로장애가 높은 것이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학교 밖 청소년이 갖는 진로에 대한 생각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희망이 주요한 영향 변인으로 밝혀진 이기엽(2011), 박지현(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진로장벽, 진로장애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 문제는 이들의 학업중단 상태뿐 아니라 이들이 갖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보다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할수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이루어

어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강점에 초점을 둔 접근을 통해 보다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거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를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 문제는 사회적 낙인감을 감소시키는 접근을 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고취시키는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기대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김진경, 김혜연, 2013),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 선택, 사회생활 등에 있어서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는데 영향력이 크다(김진경, 2011).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낙인감을 덜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진로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Goffman(1963)은 사회적 스티그마는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속성 그 자체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나 고정관념이 문제라고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낙오자’ 라고 치부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상황과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므로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캠페인 등의 인식개선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김수정, 김영미, 이화명(2013)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낙인은 도덕적인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하며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지지와 관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사회적 낙인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과

긍정적 지지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바라보고, 진로장애를 줄이고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훈련과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변의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 즉,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직 및 취업 후 부당한 처우 등의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최지연, 김현철, 2016),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사업장 및 고용주의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낙인감이 높으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 방향으로 감소하여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장애에도 영향을 미쳐, 미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일수록 진로장애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진로장애의 요인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철저한 준비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어(권해수, 2004) 자신의 진로나 삶의 의미를 구체화하지 못한데서 오는 두려움이 크다(최동선, 이상준, 2009). 또한, 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도 여러 활동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최인재 외, 2015).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진로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개별 상담 및 진로 집단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신의 성장하는 모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장애로 느끼는 요인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고, 진로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학교 밖 진로 지원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사회적 낙인감을 낮추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함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를 횡단적으로만 보아 종단적

인 변화궤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 문제 해결 및 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에 영향을 주는 성별과 나이 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pp.161-175.
- 고복순, 김영혜 (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4(2), pp.29-42.
- 곽솔이, 박성옥 (2019).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pp.5-26.
- 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2), pp.34-57.
- 권해수 (2004). 학교 밖 청소년 욕구조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 길 찾기.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pp.21-44.
- 김민선 (2019). 학업중단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의 관계: 진로장벽과 진로낙관성을 매개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pp.1029-1056.
- 김민정, 김순석 (2014). 비공식 낙인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9(3), pp.127-147.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범구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김영미, 이화명 (2013). 아동양육시설 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 및 스티그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pp.27-52.
- 김영희, 최보영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pp.145-175.

- 김지은 (2006). 알코올중독자가 지각하고 있는 낙인과 사회적 지지가 도움요청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323-355.
- 김지혜 (2005).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pp.207-234.
- 김지혜 (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적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경 (2011).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경, 김혜연 (2013).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대안가정학회지, 51(2), pp.1-14.
- 김진숙, 신혜숙, 문현주 (2014). 시설보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낙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조절변수 용서를 중심으로-. 청소년 시설환경, 12(3), pp.63-74.
- 노기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의 제정 방향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6(3), pp.79-103.
- 노지혜, 문성호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 pp.61-86.
- 박봉선 (2019).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pp.81-106.
- 박지현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5(2), pp.199-207.
- 박지현, 황미영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pp.1-24.
- 성윤숙, 이지혜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p.1-252.
- 손은령 (2001). 진로장벽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 학생생활연구, 28, pp.81-97.
- 신현숙, 구분용 (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 개인 및 사회 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6(3), pp.121-145.
- 안윤정, 오현주, 김미경 (2011). 청소년의 행동합정과 미래시간전망이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3), pp.99-116.
- 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청소년의 학업중도포기과정. 청소년학연구, 21(5),

pp.141-168.

- 오정아, 오해섭 (2018).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모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9(1), pp.145-177.
- 유지선 (2007).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심리사회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p.1-383.
- 이기엽 (2011).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7).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pp.375-392.
- 이선희 (2014). 노동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노동지지가 미래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8, pp.215-244.
- 이순래, 박형기 (2007). 비행청소년의 발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1(2), pp.149-190.
- 이영재 (2008).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업성취도에 미래성공기대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옥, 이은옥 (2006). 낙인(stigma) 개념분석. 류마티스건강학, 13(1), pp.53-66.
- 이화명, 김영미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pp.549-562.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pp.3-21.
- 조아미, 이진숙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청소년학연구, 21(7), pp.145-170.
- 조혜영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1), pp.485-498.
- 주금옥(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 이상준 (2009).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최지연, 김현철 (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pp.103-132.
- 홍봉선, 남승규, 남미애 (2002). 사법처리경험과 소속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 사회적 지지 및 교정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pp.45-69.
- 황선미, 신현숙 (2007). 고등학생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1), pp.229-24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Crites, J. O. (1969). *Vocv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 (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B. Walsh & S.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67-110).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275-306.
- Haldeman, D. E. & Baker, S. B (1992). Helping Female Adolescents Prepare to Cope with Irrational Thinking via Preventive Cognitive Self-Instruction Training.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3(2), pp.161-169.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nt, R. W., Brown. s.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pp.36-49.
- Matsueda, Ross L.(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gra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 pp.1577-1611.
- McGee, J. (2001). Reflection of an alternative school administrator. *Phi Delta Kappan*, 82(8), 588-591.
- Mickelson, K. D. & Williams, S. L. (2008). Perceived stigma of poverty and

- depression: Examination of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mediato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9), pp.903-930.
- Penn, D. L., & Martin, J. (1998). The Stigma of severe mental illness: some potential solutions for a recalcitrant problem. *Psychiatric Quarterly*, 69(3), pp. 235-247.
- Poole, M. E., & Cooney, G. H. (1987). Orientations to the future: A comparison of adolescents in Australia and Singapor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2), pp.121-142.
- Tram, J. M. & Cole, D. A. (2000).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Mediator or moderat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4), pp.753-760.
- Trommsdorff, G., Lamm, H., & Schmidt, R. W. (1979).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future orientation (time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2), pp.131-147.
- Vogel, D. L., Wade, N. G., & Haake, S. (2006). Measuring the self-stigma associated with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pp.325.



## Abstract

# A Study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inking to Fu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Career Obstacle of Out-of-School Adolescents

Park Dong Jin\* · Lee Ji Yeon\*\*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thinking to future from the impact of social stigma of Out-of-School adolescents on career obstacle, and attempts to grasp the direct effect of social stigma on career obstacle and the indirect effect through thinking to future. To do this, 454 out-of-school adolescents who were in a state of school dropout were used in the data for the second year(2014) of the 'School Dropout Youth Panel Survey'.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social stigma of Out-of-School adolesc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obstacle. Second, the social stigma of Out-of-School adolescent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ir thinking about the future. Third, it was found that thinking to futur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obstacle. Fourth, in the process of social stigma of Out-of-School adolescents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impairment, it was found that the thinking to future was partially medi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and suggested various measures to reduce career obstacle of Out-of-School adolescents and to support their career.

---

\*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yeong University, wookana@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 Doctorate Student,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ji University, verangel@nate.com

한국청소년활동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3호)

**Keyword** : Out-of-School Adolescent, Social Stigma, Career Obstacle,  
Thinking to Future, Mediating Effect, School Dropout Youth  
Panel Survey

투고일 : 2020. 06. 01.    심사일 : 2020. 06. 23.    게재확정일 : 2020. 06. 26.